

농약산업號 어디로 가나?

“說” “說” “說” ... 농약업계



돌출 시장변수 많아 경영전략 수립 苦心
급변하는 환경속 IMF산물 ‘개방화 파고’ 거세

홍보부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말 6.25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외환위기를 맞아 지난 한해동안 IMF의 구제금융 관리를 받으면서 외화유치와 경상수지 개선을 통한 경제회생을 위해 많은 국민이 실직과 노숙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을 에이는 한파를 참고 견뎌내야 했다. 또 급격한 원화 가치의 하락과 정부의 적극적인 외화 유치정책은 농업자재분야에도 다국적 기업의 국내기업 인수 합병을 현실로 다가오게 했다. 종묘업계는 1996년 노바티스사가 서울종묘와 자본합작을 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흥농종묘와 중앙종묘가 멕시코의 다국적기업인 세미니스사로 운영권이 넘어 가는 등 흥역을 치룬지 오래다.

업계, 시장변화 예측속 촉각 끝추세워

한편 농약업계는 1997년도의 대규모 부도사태에 이은 IMF체제의 엄습으로 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돼 지난해에는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임직원이 실직의 고통을 겪어야 했

고 결국은 동양화학공업(주)의 농약사업부가 노바티스사에 매각되고 이어 전진산업(주)가 프랑스의 다국적기업인 롱프랑사에 운영권을 넘겼다. 다국적 화학기업의 해외투자는 1980년대 초의 세계적 불황과 화학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이 맞물리면서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재편의 물결로 이어져 1980년대 말까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1990년대 초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로 세계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아시아와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 달성과 이들 국가들의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 및 보완노력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 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다 앞서 외환위기를 경험한 동남아 기업의 경우 환율급등과 주가폭락으로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의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증권 및 부동산 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내투자를 제한하는 요소들이 많았으나 IMF사태로 인해 지난해에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외자유치에 지장을 주는 증권거래법과 외자도입법 등을 개정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 합병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완화내지 철폐하고 있어 인수 합병 현상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면 개정된 농약관리법을 시행한지 2년을 보내면서 농약 제조 및 수입업 등록이 쉬워져 많은 신규업체가 농약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국내 농약업계는 시장변화 예측에 촉각을 곤추 세우고 있다.

국내 원제산업 입지 더욱 어려워져

우리나라 농약산업은 기존성분의 혼합제나 적용확대에 주력하는 등 순수 신물질 개발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물질특허제도는 특허기간이 끝난 원제를 복제해 생산하는 국내 원제산업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자급률 52.7%도 선진국의 신규 개발 원제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 농약제조업 역시 연평균 공장가동율이 25%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개발비 투자도 주로 품목등록 시험에 투자되고 있을 뿐 신농약 개발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한편 영농기반은 재배면적이나 작부체계가 1990년대 들어 큰 변동이 없어 수요량은 정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약시장의 출하액 평균 성장율은 고품질 및 고효능 품목의 개발과 원제가격 인상에 따른 농약가격의 인상 등으로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농약시장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요충지로 평가될 수 있고 대북 농자재 지원이나 교역이 활성화되거나 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북한 지역의 농약 시장 또한 크나큰 개발의 여지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농약시장의 주변여건은 다국적 기업에게는 충분한 투자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1997년말 우리나라 경제를 대혼란으로 빠뜨린 IMF구제금융에 따른 환율의 급속한 상승과 국내의 외환유인 정책은 다국적 기업의 구미를 한껏 자극, 지난해에 노바티스사가 동양화학공업(주)의 농약사업부를 인수한데 이어 롱프랑사가 전진산업을 인수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1994년에 독일 아그레보사가 미성을 인수한 후 독일 바이엘사와 합작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는 아그레보사, 바이엘사, 노바티스사, 롱프랑사 및 스미토모사가 어떤 형태로든 국내 농약제조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다국적 기업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기업의 국내 참여는 선진외국의 발전된 경영기법, 마케팅전략 및

제조기술의 국내 이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자립기반이 취약한 국내업체로서는 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추 세우고 있다.

국내업계에 미칠 영향 우려

이와 같이 다국적기업이 참여한 3개 회사의 1998년도 국내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르고 있어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영업전략을 전개하는가에 따라 국내기업의 영업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은 대리점을 통한 영업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사 직판체제의 영입이 강화되면 이제까지의 시판상 유통구조가

붕괴 되면서 외국기업의 영향력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외국기업이 자사가 개발한 원제를 국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는 공급을 기피하고 합병회사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등 저개발국의 값싼 원제의 수입이 늘어나 품질저하가 우려되며 장기적으로 독점품목의 증가로 농약가격의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원제를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현재 유통중인 품목의 등록회사 대변동으로 이어져 원제생산 외국기업에 따른 품목등록 재편이 불가피

다국적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합병 동향

회 사 명	내 용
Am. Cyanamid(미국)	PPG Industries농약사업매수(1988), Shell농약사업부 매수(1993)
Dow Chem(미국)	Wacker. Chem.의 농약사업부 매수(1986), United Agriseed사 매수하여 Bio농약사업 검토(1987) Elanco농약사업부 매수하여 Dow Elanco설립(1989)
Du Pont(미국)	Ruhr Stickstoff 농약사업부 매수(1985), Amonn Fitochimics 농약사업부 매수(1985) Shell 미국 농약사업부 매수(1986)
Chevron(미국)	PPG사 농약사업부 매수(1988), Valent에 매도(1992)
American Home Products(미국)	Am. Cyanamid사(Shell농약지분) 인수(1994)
ICI(영국)	미국 Stauffer사의 농약사업부 매수(1986), 종묘, 농약, 제약사업부 합쳐 Zeneca사 발족(1993)
Penwallt(영국)	스페인 살균제 회사인 Dequsia사 매수(1986) Penwalt France사가 RSR(Raffineries du Soufre Reunies)사의 농약사업부 매수(1986)
Rhone Poulenc(프랑스)	Mobil사 농약사업부 매수(1981), Union Carbide사의 농약사업부 매수(1986) 스웨덴의 Keno Gard사 인수(1989), 전진산업(주) 인수(1998. 7)
Sandoz(스위스)	Velsicol사의 농약사업부 매수(1986), 일본 SDS Biotech KK사의 지분인수(1988) Ciba Geigy와 합병 Novartis설립(1996)
Novartis(스위스)	미국 Merck사의 농약사업부 매수(1998), 동양화학공업(주) 농약사업부 인수(1998. 5)
Ciba Geigy(스위스)	Sandoz와 Novartis 설립(1996)
Shell(네덜란드)	Celamerok사를 매수(1986), 농약사업부를 Am. Cyanamid에 매각(1993)
Sumitomo(일본)	미국 Chevron사와 미국내에 합병회사 설립(1998), 미국 Valent사 매수(1991) 스페인 Keno Gard사 매수(1992), 프랑스 Rhone Poulenc사와 합작회사 설립(1993)
Hoechst, Schering (독일)	양사 농약사업부를 분리, 합병하여 AgrEvo설립(1993), 독일의 복제품 생산사인 Stefes를 인수(1994) 한국의 미성농약 인수(1994)
Hoechst, Rhone Poulenc	양사의 제약 및 농화학 분야 합병발표(1998.12. 1), 1999년 중반경 Aventis로 출범 예정

할 것이다.

또한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을 등록할 때 안전성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복제 농약을 생산하기 위한 자료의 이용료 문제 대두와 아울러 신농약을 개발할 때는 OECD회원국으로써 OECD기준에 맞는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 외국기업의 신제품 독점화는 더욱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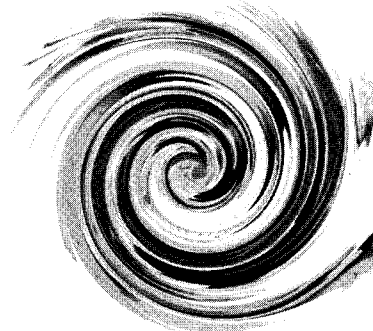
농협의 수입업 등록과 제조업 참여說

국내 농약시장이 이와 같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회사인 농협무역이 농약수입업을 등록한데 이어 농협중앙회가 제조업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농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아직은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농협 내부조사에 따르면 농협은 농약유통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유통조직으로 농약사업의 전문성 및 서비스 체계를 강화한다면 외국기업도 농협을 통한 유통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으며 외국기업의 독과점으로 농약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유통체계가 무너지면 농협무역의 농약 수입기능 강화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 생산자 단체로서 농약을 싼값에 안정적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하려면 외국기업의 농약시장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생산에도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농약제조업 참여때의 문제점으로 유통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고정투

자 부담이 늘어 나고 농협계통 공급량을 늘린다 해도 농업인이 선호하는 제품 다양성을 어떻게 충족할 것이며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 조달과 경쟁관계에 있을 국내진출 외국업체의 원제와 완제품 확보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 등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협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농협이라는 거대조직이 중소기업의 영역이라 할 수 밖에 없는 농약 제조업에 뛰어드는 등 문어발식 확장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하는 곱지 않은 시각일 것이다.

끊이지 않는 소문에 해석도 제각각



우리나라 농약업계는 아직도 환율 불안으로 다국적 기업의 추가 인수 합병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웨스트사와 롱프랑사가 농화학분야 합병을 지난해에 발표하고 올해 Aventis를 출범할 계획으로 있어 (주)미성과 전진산업(주)와의 관계 정립도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미 진출한 외국기업의 지난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르고 있어

국내의 기업 모두는 지금 뚜렷한 경영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환율변화만을 주시한채 환경보호 압력과 안전 농산물 생산이라는 명제 속에서 IMF체제가 빛은 개방화라는 거센 파도에 휩싸여 있다.

외국기업의 경영전략이 국내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으며 농협의 움직임 역시 또 다른 시장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농약시장 판세 변화에 국내외 기업 모두가 뚜렷한 경영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환율변화만을 주시한채 환경보호 압력과 안전 농산물 생산이라는 명제 속에서 IMF체제가 빛은 개방화라는 거센 파도에 휩싸여 있다. **농약정보**